교원그룹, 유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팔 걷어

교원그룹이 유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에 나선다. 11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김혜성 선수가 참여하는 '성적 연계 매칭기부'와 초록우산의 예체능 인재 지원 사업 '아이리더 캠페인' 후원 등 총 1억8000만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왼쪽부터)장동하 교원그룹 사장, 김혜성 선수,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그룹

롯데바이오로직스, 인천서 '연합 봉사의 날' 행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천에서 '연합 봉사의 날'을 열고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 봉사단 '엘비하트(LB:Heart)' 등 참가자들은 문구, 간식, 방한용품 등을 한 데 구성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선물 세트는 지역아동센터 10여 곳에 배분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영홈쇼핑, 소비자 중심 경영 재인증 결의식

공영홈쇼핑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 재인증 결의식'을 갖고 소비자 중심 경영 제고에 나섰다. 결의식에서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CCM 실천 선서'를 통해 지속적인 소비자 중심경영을 확립할 것을 다짐했다. 공영홈쇼핑 김영주 대표이사 공동대행(왼쪽 첫번째), 이종원 대표이사 공동대행(오른쪽 첫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NH농협은행, 청해초 '우리 동네 빛나는 졸업식' 개최

NH농협은행은 전남 완도군 소재 청해초등학교에서 농촌 지역 아동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꿈을 응원하는 '우리 동네 빛나는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졸업식 현장을 방송 콘텐츠로 제작, 농촌 지역 아동들의 성장 이야기를 더 많은 시청자와 공유해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12명의 졸업생 각자의 장래희망과 연계한 '드림키트'를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NH농협은행

애경산업, 연탄나눔 행사… 1만1465장 전달

애경산업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랑과 존경의 연탄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연탄 1만1465장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은 소비자들의 이벤트 참여로 마련된 연탄 2465장에 애경산업이 기부한 9000장의 연탄이 더해졌다. 또 애경산업은 섬유유연제, 소독티슈 등 생활용품을 담은 상자 200개를 함께 지원했다. /애경산업

권오갑, 노조 지부장 소통… "지속가능 발전 힘 모아야"

〈HD현대 명예회장〉

역대 지부장들과 오찬 간담회
권 명예회장, 상생원칙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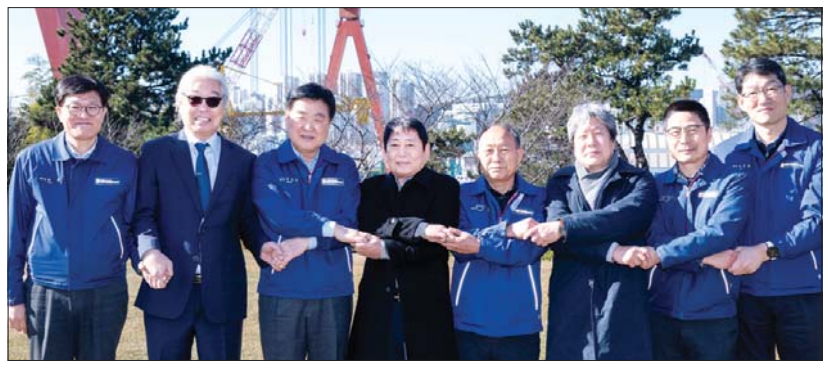
HD현대는 권오갑 명예회장이 전임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만나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견고한 노사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권 명예회장은 최근 울산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지난 2014~2023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이끌었던 역대 지부장 5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명예회장은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는 권 명예회장이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 사장 취임 이후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노사는 한 배를 탄 동반자'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상생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명예회장은 지난 2023년 당시 박근태 지부장이 노조 활동으로 수감 중일 때 조용히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하며 "각자의 역할 수행 중 발생한 상황이 안타깝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전임 노조 지부장들과 상생 오찬을 가졌다(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정병모 20대 노조 지부장, 권오갑 명예회장, 백형록 21대 노조 지부장, 박근태 22대 노조 지부장, 조경근 23대 노조 지부장, 정병천 24대 노조 지부장). /HD현대

간담회에 참석한 전임 지부장들은 "과거의 대립을 넘어 회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권 명예회장이 꾸준히 강조해 온 '현장 경영'과 '사람 중심 경영'의 연장선"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진정한 경쟁력으로 삼아 격의 없는 소통과 상생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샤힌프로젝트 현장 점검

울산 온산공장 방문… 안전 강조

샤힌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S-OIL) 최고경영자(CEO)가 울산 온산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프로젝트의 안전한 완공을 거듭 강조했다.

에쓰오일은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가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온산공장을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안전과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한 이후 직접 공정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가 온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에쓰오일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온산공장 안전환경동에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사소한 부분이라도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거듭 또 거듭 점검해 달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샤힌 프로젝트 현장을 찾은 알 히즈아지 CEO는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점을 언급하며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전사가 긴밀히 협력해 가동 시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회사는 물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 '우주의 조약돌' 4기 성과 발표

"장기적으로 우주인재 발굴·육성"

한화는 지난 1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우주과학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4기 성과발표회와 수료식을 열고 200일간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가 주최하고 KAIST가 주관하는 우주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번 4기에는 4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총 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수료생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우주과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을 진행했다.

'우주의 조약돌' 4기 수료식에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과 멘토, 수료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화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지구가 곧 멸망한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제2의 지구 탐색을 위한 우주망원경 ▲외우주 항해를 위한 탐사선 ▲태양계 마지막 우주정거장 △핵융합 기반 추진체 ▲심우주 항법 시스템 ▲수륙양용 착륙선 설계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수료생들은 6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완성한 제2의 지구 탐사 연구 성과를 선보였다.

4기 수료생 30명에게는 KAIST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미국 항공우주국(NASA) 탐방, KAIST 영재교육원 수강 등 후속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기존 수료생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주 분야 진로와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화는 우주 분야에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장기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발전시키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투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해수부, 극지연구 분야 장학생 모집

해양수산부가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3년부터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을 추진해 왔다. 미래 극지연구를 주도하고 전문적인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도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00만 원 내외의 장학금을 최대 4학기까지 지원한다. 또 북극 관련 대표 국제포럼인 '북극서클총회'(아이슬란드)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 달 13일 해수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직원 3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3명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승교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백신 공급체계 및 접종관리 개선, 백신매칭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구제역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인 이승환 축산환경자원과 수의사무관은 발전소의 발전연료(유연탄)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추진했다.

왕희대 자유무역협정팀 농업사무관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쇠고기 등 국내 농업의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 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승진 △통계서비스국장 우영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박상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정동욱

◆**경인일보** ◇승진 △상무 김성규